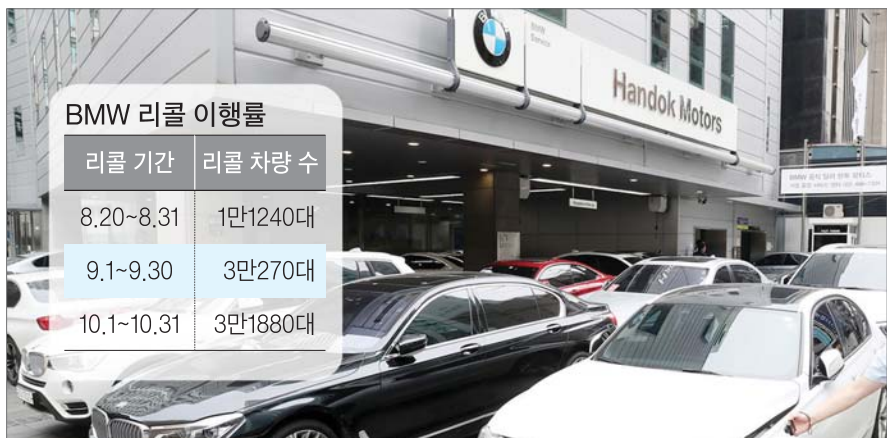


BMW리콜 속전속결, 석달새 77%... 일부 블랙컨슈머도

대차서비스 거부... '역이용' 과도한 보상금 요구 골머리
민관합조단과 화재 원인 이전 EGR밸브 누수 두고 갑론을박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지난 8월 20일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 여름 차량 화재로 인해 BMW가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다.

BMW코리아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BMW 코리아가 국내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리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리콜이행률 77% 넘어

15일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화재 관련 EGR 모듈 교체 리콜(시정조치)이 완료된 차량은 11월 14일기준 8만22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10만6000여대의 77%를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의 리콜 차별 논란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콜의 경

우 통상적으로 1~2년이 지나도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 특히 이번 화재 이슈와 관련해 BMW코리아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실시, 리콜 전담 고객센터 및 전국 서비스센터 24시간 운영, 무상 렌터카 제공 등 전례 없는 전사적 대처로 수입차 업계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BMW코리아는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리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올해 안에 리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EGR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신차 교환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BMW코리아의 이같은 대응을 역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차서비스 종료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문제는 BMW코리아가 보상 정책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고객은 이를 거절하고 과도한 보상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MW코리아가 렌터카 대신 동급의 BMW대차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렌터카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이 3개월간 렌터카를 이용함에 따라 13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 중간 발표 논란 키워

BMW 차량 화재 논란은 최근 BMW 화재조사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내놓으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차량의 또 다른 화재원인으로 'EGR 밸브' 문제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는 BMW가 애초에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조사단 실험 결과 BMW 차량 화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EGR 밸브가 일부 열림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고속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작동 등의 조건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EGR 쿨러 누수로 된 적된 침전물이 EGR 밸브를 통해 들어온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티가 발생하고 엔진룸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어 불꽃으로 확산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BMW측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BMW 측이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EGR 모듈에는 이미 EGR 밸브가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발적 리콜 중인 BMW 디젤 차량의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며 이는 이번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현재 리콜 작업은 EGR 밸브가 포함된 EGR 모듈 전체에 대한 교체이며 EGR 밸브, 바이패스 등은 화재의 주원인이 아닌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는 "EGR 밸브는 EGR 모듈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쿨러의 냉각수 누출이며,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연말 발표하는 최종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큐셀 中 최대 원전기업에 태양광 모듈 공급

CGN에 100MW 고효율 모듈

한화큐셀이 중국 국영 원자력 발전기업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

한화큐셀은 중국광해집단유한공사(CGN)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국 후베이성 통산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화큐셀은 100MW 상당의 고효율 단결정 모듈 '큐피크(Q.PEAK)'를 공급할 예정이다.

CGN은 1994년 설립된 중국 최대 원자력 발전기업으로 2017년말 기준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해 현재 총



중국 후베이성 통산현에 설치된 한화큐셀 큐피크(Q.PEAK). /한화큐셀

1.7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고효율 단결정 모듈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차, 드론 전략 투자... 혁신 모빌리티 강화

미국 드론기업 톱 플라이트와 맞선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발굴 기대

현대자동차가 미국 드론 분야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톱 플라이트 테크놀로지스(이하 톱 플라이트)와 손잡고 미래 혁신 모빌리티 대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톱 플라이트에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무인항공 드론(UAV) 시장이 2016년 56억 달러(6조 3420억원)에서 2019년 122억 달러(13조 8165억원), 2026년에는 221억 달러(25조 282억 5000만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가 전략적 투자에 나선



톱 플라이트 직원이 기술인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톱 플라이트는 2014년 선림해 무인항공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스타트업회사다. 하이브리드 및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드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드론에는 기본 배터리 외에 소규모 기술인 엔진을 탑재, 비행 중 엔진을

가동시켜 배터리를 충전시킴으로써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재 톱 플라이트의 하이브리드형 드론은 4kg의 화물을 싣고 2시간 이상, 10kg 화물로는 1시간 이상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뛰어난 장거리 비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톱 플라이트 측과 공동으로 고성능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혁신 분야로 꼽히는 드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발굴하는 한편, 고객에게 전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무인항공 드론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군사용과 취미 용이며, 상업용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양성운 기자

'금강산 관광 20주년' 현정은 회장 방북

(현대그룹)

현대그룹 4년 만에 남북공동행사

현대그룹이 오는 18일부터 1박2일간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15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방문동의서를 받아 방북 신청을 했고 이날 통일부로부터 최종 방북승인을 받아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20주년 공식 행사명은 북측과 협의해 '금강산관광 시작 20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로 정해졌다.

이번 행사에 현대그룹에서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 초청인사로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김성재 전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



1998년 6월 정주영 회장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북한으로 출발하는 모습.

지사 및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인영 남북경제협력특위 위원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중대 정의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LH 등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동행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중국서 '혁신 AI 기술' 뽐내

'삼성 미래기술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뽐냈다.

삼성전자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미래기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바이두와 샤오미, 하이커비전 등 중국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현지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까지 500여 명이 참가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최철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부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 5G,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삼성전자의 첨단 부품 솔루션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미래기술 포럼'을 열었다.

/삼성전자

선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AI 산업이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S.LSI,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각각 최신 기술을 공개했다. AI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는 'HBM2D 램'과 엑시노스9(9820), EUV 적용 7나노

공정 등 AI용 토폴 솔루션이 주목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참했다. 조연결사회에서 디스플레이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며, 삼성 OLED가 화질과 응답속도, 소비전력 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